통권 124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2. 2. 15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악의 화신’ 부시를 규탄한다.

2월 6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대사관 옆에서 전국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광범위한 6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부시방한 반대 제 민주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모든 단체는 ‘악의 축’ 발언 등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무기수입을 강요하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드높였습니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회장 • 2 / 출소장기수 서순정 선생님을 찾아서 유영순 편집위원 • 5 / 양심수 발생현장:한국 시그네틱스노조를 찾아서 이승미 편집위원 • 8 / 김도균 회원을 찾아서 이창희 간사 • 12 / 10차 범민족대회 방북대표 이성우님께서 보내온 편지 • 14 / 이성우님께 보내는 답장 이혜정 회원 • 15 / 산행기 김수룡 선생님 • 16 / 감옥에 보내는 시 유병문 편집위원 • 18 / 회원교육강좌 보고 김현애 회원 • 19 / 특집 ‘조선일보 민간법정’ 보고 • 20 / 후원회 논단 ‘부시 방한반대’ 권오헌 회장 • 25 / 나의 삶 나의 일터 안은현 회원 • 29 / 광고 • 30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31 / 재정보고 • 39 / 회비납부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765-5282 Fax: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Tel, Fax: 888-4470 URL: www.yangsimsu.or.kr

국민의 정부 4년 오늘의 인권현실

- 국가보안법 철폐 · 양심수 특별사면을 거듭촉구한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414회 민가협 목요집회는 마침 명절을 앞두고 설과 양심수를 주제로 열리고 있었다. 3300만명 민족대이동이 있을 거라고 보도되었다. 저마다 고향을 찾고 헤어져 지내던 가족 · 친지들이 반갑게 만날 것이다. 차례를 지내기 위한 설빔과 음식준비에 분주한 설대목이지만 감옥에 자식과 남편을 두었거나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는 자식을 둔 어머니들에겐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서럽고 가슴아프기만 했다. 추우면 추운대로 여름엔 더위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즐거워 해야 할 명절때조차 양심수가족들에겐 마음 한 구석에 찬 바람만 불고 있는 통한의 모정을 안고 산다.

권력형 부정비리자들이 속속 풀려나오고 거액 탈세 등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언론사 대표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구속에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가 하면,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언론 행위로 민간법정에서 준엄한 유죄심판을 받았던 언론사 대표조차 불구속재판을 받으면서 유죄선고(실형)를 받았으나 구속시키지 않고 있는 터에 양심수들은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중증환자도, 70살이 넘는 노약자도, 형의 대부분을 살고 있도록 사면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가족들은 국민의 정부가 원망스럽기만 했었다. 그리고 3.1절, 성탄절, 광복절, 성탄절 때마다 무기수를 비롯한 수백명, 수천명의 일반형사 피의자들이 석방조치로 풀려나고 있지만 지난 2년동안 (2000, 2001년) 양심수는 단 한사람도 사면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었다. 자주와 통일을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일한 몫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 평화스런 사회 - 사람답게 잘 살자고 외친 일이 그렇게도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느냐고 엄중히 묻고 있었다.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2년 6월형 항소심을 마친 임태열씨 부인 박윤희님은 어린 딸과 함께 나와 언제나 나라와 겨레 사랑에 헌신해 왔던 남편이 한겨울 불끼없는 독방에서 명절을 잃은 채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야 하는 아내의 아픈 마음을 말하고 있었다. 다섯 살된 지원이는 아빠가 갇혀있는 남쪽을 보고 부끄럼을 타면서 세배를 하였다. 눈물을 글썽이며 금시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까지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1996년 김영삼 정권은 한총련 대 탄압에 이어 97년 이적규정으로 수 많은 학생들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 갔고 정치수배자로 오늘 이 시간에도 쫓기고 있다. 그 가운데는 97년 한총련 출범식 뒤 오늘까지 6년 동안을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는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몰라 가슴 조이면서 만가협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국대 최원석학생의 어머니 방영수님도 자식사랑에 뼈를 깎는 아픈 마음을 말하고 있었다.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고 .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철거민 청년학생과 통일인사 노조지도자들을 대신해서 성균관대생 학생이 푸른 수의를 입고 어머니들께 세배를 드리는 포퍼먼스도 있었다. 그리고 지켜보던 시민들이 말하였다. "나쁜 놈들 풀어주면서 이렇게 바른말 하는 사람을 가둬 두다니!" "언제부터 없앤다던 국가보안법을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는가"라며 묻고 있었다.

하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문민정권 5년에 다시 국민의 정부 4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고 양심수가 갇혀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갖는것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민주사회에서는 반민주악법이나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는 있을 수 없다.—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고로 이 나라에서는 국보법도 양심수도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3단논법대로라면 그렇다. 그런데 이땅에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어 오늘 이 시간에도 양심수를 잡아 가두고 있다. 대통령이 2002년 국정지표를 말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국가보안법등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취임사에서 말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일까 - 위에서 말한 3단논법에서 추론된 대로 악법도 양심수도 없단 말인가. 이제 양심수를 중심으로 한 이땅의 인권 실태를 몇가지 구체적 사실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3단논법 소전제로 했던 명제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가 잘못되었음을 밝히려 한다.

① **김영삼정권은 집권 5년동안** 4269명의 양심수를 잡아 가두면서 취임 경축사면말고는 양심수사면도, 양심수인정도 하지않는 비정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현정권도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다. 집권 4년이 다된 지난 2월 5일 현재 1890명의 양심수를 구속했고 2000년, 2001년 두 해 동안 단 한 사람의 양심수도 사면(석방조치)하지 않았다. 민주정권이기에 양심수는 있을 수 없다는 김영삼류의 오만인 것인가 그렇다면 학생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 사회진보운동을 했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도시빈민, 통일애국인사들과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6 · 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앞장선 사람들은 파렴치범이란 말인가

② **국가보안법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6 · 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 · 양심의 자유, 언론 · 출판 ·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 · 결사의 자유등을 침해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과 사상통제를 강화하며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분단고착화 등으로 제정때부터 거센 반대가 있었으며 그 뒤 폐지투쟁이 이어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후보때부터, 당선되고서도, 인권메달을 받았을 때, 6 · 15남북공동선언 뒤에도 국보법의 반통일 반인권성을 들어 개폐할 것을 말해 왔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폐지법안은 물론 스스로 말해왔던 개정시안조차 국회에 내놓지 않고 있다. 국보법폐지에 수구냉전세력의 방해책동이 있는것도 인정되지만 야당 때문만으로 책임을 면해보려 한다면 더 큰 잘못이다.

③ **국가안전기획부 개혁론이** 정권교체후 한때 활발히 거론되었었지만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보는 국력이다' 란 부훈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물론 해외정보기능과 국내보안수사 기능으로 분리하는 등 일부기구 개편이 있었지만 수사권 전면삭제와 해외정보기능만으로 남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개혁요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김영삼정권에서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국가보안법 7조, 10조의 수사권마저 없애지 않고 있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은 바꾸었지만 조직, 예산, 인원, 활동이 비밀에 붙여진 특수비밀 수사정보기관이란 국정원법상의 지위와 직무, 조직 운영이 그대로 있는 한 최종길교수 살해와 은폐조작혐의, 수지 김 사건의 은폐조작을 비롯한 그리고 최근 각종 게이트 사건마다 국정원 사람이 개입된데서 보듯이 정치개입, 인권침해, 직권남용사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고 해외정보기구로만 새로 태어나야 한다.

④ **범민련, 한총련등** 통일운동단체와 사회진보운동 단체에 대한 부당한 이적규정으로 수많은 통일운동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구속되거나 정치수배로 쫓기

고 있다. 이들은 자주 · 평화 · 통일 민족대단결이란 7 · 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 · 15남북공동선언정신에 따라 활동했을 뿐이다. 특히 한총련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 학생회를 만들고 반장, 회장을 뽑고 있는데 최고의 지성이며 성인이 된 청년학생들이 자신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뿐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형태이든 조직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국제인권협약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한총련만을 이적으로 규정 탄압하는 것은 반민족 · 반인권 행위이다. 현정권 출범뒤 4년간 구속된 917명 학생들과 228명의 재야인사들은 이렇게 반민족 · 반인권 · 반통일 악법으로 그리고 부당한 이적규정으로 구속되고 있었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말기암을 앓고 있는 동생을 면회갔던 누나가 가족들이 지켜보는데서 강제로 끌려갔고, 결혼을 며칠 앞둔 남학생이 구속되었으며, 수배받고 있던 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강제로 연행 구속되고 있는 오늘의 인권상황이다. 반인륜 · 반문명적 야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⑤ 노동3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노동쟁의를 공안대상으로 하여 집권 4년간 687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특히 IMF 체제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초국적자본이 강요하는 구조조정 · 정리해고등으로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는 일터를 잃고 탄압받고 구속되는 악순환속에 있다. 또한 노동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아 구속하고 비정규직 확대조치에 따른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동3권보장 요구마저 공안대상으로하여 구속하고 있다.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어느 시민이 '인권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인데 왜 양심수가 있고 반민주악법이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었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이 있고 폭압기구가 있으며 통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양심수가 부당하게 구속되고 있는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알아보았다. 아직도 감옥엔 단병호, 문성현씨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노동자들, 70살이 넘은 범민련 라창순 고문과 임동규 광주전남의장, 하영옥씨를 비롯한 민혁당 관련자들, 중증 간경화를 앓고 있는 영남위원회 박경순씨, 평양축전에 다녀와 구속된 부산경남연합의장 이성우씨와 황혜로 한총련 대표, 김대원, 황선씨등 범청학련 대표, 손준혁 6기한총련의장등 한총련 학생등 81명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석방등 3 · 1절 특별사면을 촉구한다.*
- *범민련 · 한총련등 이적규정 철회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 정리해고 중단하고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나이는 들었지만 나도 싸울 것입니다."

유영순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2월의 첫 날, 상도동 서순정(71세) 선생님댁을 찾았다. 빨치산 생활 4년, 수감생활 20년. 역사의 한복판에서 젊음과 목숨을 바친 생존해 계신 산사람을 만난다는 마음이 설레임만일 수는 없었다.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많은 피와 열정을 삼킨 산은 그 모습 그대로 아무 말이 없는데 그 때의 그 젊은이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일지.

선생님댁 거실 곳곳에는 자주통일(自主統一), 평화통일(平和統一), 조국통일(祖國統一) 등의 문구가 힘있는 붓글씨로 씌어져 있었다. 선생님은 양심수 후원회 소식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발행하는 장기수 후원회 소식지, 민족 21 등의 책을 열심히 읽고 계신다고 하였다. 또한 일흔을 넘긴 연세에 인터넷을 통해 통일관련 소식도 접하고 계셨다.

서순정 선생님은 1931년 1월 24일 지금은 순천시로 편입된 승주군 송강면 후곡리에서 1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 형제분들은 송광사 부주지였던 큰아버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들이었고, 평생 고된 노동 속에 사셨다. 어머니 또한 가난한 농군의 자식으로 어린 나이에 시집와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 선생님 나이 18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큰누이는 가난한 집안에 입하나 덜려고 어려서 남의 집 민며느리로 보내졌고, 작은 누이 역시 어려서 남의 집 식모살이로 보내졌으니 어린 서순정의 집안 형편이 어떠하였는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6살에 곡식 빚 때문에 새벽에 후곡 마을로, 7살 때는 다시 여수 돌산으로 이사를 한다. 1938년 8살 되던 해 서순정은 여수에서 마을 부호였던 유준호가 세운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공립 고등학교에서 2년 더 공부를 한 후 1945년 2월 졸업을 한다. 해방이 되자 동경 유학생들이 마을로 귀국하여 야학을 연다. 그 때 서순정은 처음으로 마르크스-레닌에 대해 공부하고 세계관에 변화가 온다. 해방공간에서 그는 자주통일,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관련된 벽보를 부치고 삐라를 뿌리는 일을 한다.

해방 후,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야욕이 본격화되었다.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단독선거를 하면 분단이 장기화 될 것이고 다시 통일이 되려면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려야겠습니까. 그래서 투표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선거함 파괴, 선거함 소각 투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중 제주도민의 투쟁이 거세고 빛났지요. "

제주도민의 4·3 투쟁이 전개되자 이승만은 양민 진압을 위해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투입하려 한다. 이에 14연대(지휘관 김지회)가 이승만에 반기를 들고 여수, 순천, 보성, 구례, 화순을 장악하고 단독정부 수립 반대, 4·3 항쟁 지지를 표명하며 여순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군인 봉기 사건 현장의 한 가운데 있던 서순정은 면에서 대대적으로 열린 환영대회, 보호 대회에 참석한다.

"이승만이 4·3 사건을 조작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 14연대를 투입하려 하자 14연대가 의거투쟁을 전개한 것이지요. 당시 너무 많은 군중이 환영대회에 참석하여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14연대가 봉기를 일

동지애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우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투쟁과정에서 얻은 동지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52년 겨울 내가 다리에 총상을 입을 때 옆에 있던 동지 두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동지' 하며 쓰러질 때의 심정…

으켜 15일간 여수, 순천은 해방구였지요. 15일쯤 후 진압을 위한 20연대가 투입되었는데 20연대는 공립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기 시작하였죠. 여수 뒤에 있던 종고산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14연대 군인들, 주민들, 학생들이 한편이 되고 20연대가 한 편이 되어 싸우는데 결국 진압당하고 말았죠. 이 때 일부는 체포되고 일부는 후퇴하였는데 체포된 사람들 경우에는 재판받아 처벌되기도 전에 학살이 되었죠. 그래서 숱한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보름 동안의 짧은 기간에 14연대는 여수, 순천 지역의 행정, 사법 일체를 장악한 후 군민의 지도자들과 함께 관공서를 운영하여 임시 행정을 꾸려나갔다. 흔히 생각하는 약탈, 방화, 무질서는 볼 수 없었다. 많은 주민들이 14연대를 중심으로 호응하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14연대의 주장이 "같은 민족을 살상할 수 없다"였기에 군중 대회에서 제주 4·3의 내용을 알게 된 군민들은 당연히 14연대에 호응할 수밖에 없었다. 14연대의 지도부에 미군이 있었으나 그들의 통제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수, 순천이 20연대에 의해 진압된 후 서순정은 여수를 빠져나와 돌산 밑에 있던 섬에서 식당의 잔심부름꾼으로 일하며 한국전쟁 때까지 도피생활을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21살의 서순정은 여수에서 군당비서로 있던 박일봉 밑에서 사무관으로 일한다.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 9·28 후퇴 명령이 내려지고 어려서 살던 후곡마을의 모후산으로 피난을 간다. 이 때부터 54년 3월 체포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의 빨치산 생활이 시작된다. 모후산은 950고지로 보성강을 건너면 송광사가 있는 조계산과 연결되는 산으로, 산세가 깊고 산림이 울창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후산에서 400여명의 빨치산들이 산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규모는 전쟁 후 토벌되기 전까지 320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였기에 토벌대가 함부로 달려들지 못할 정도였다. 한국전쟁 중에 북에서 대학 교수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북으로 미처 올라가지 못한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산에서 도당학교를 만들었다. 서순정은 51년 두 차례 도당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후 빨치산 군관학교에서 두 차례 더 교육을 받았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량을 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요. 51년 하순까지는 일반 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기에 군민들의 협조 덕분에 식량 보급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지요. 그 후 저녁으로 전투를 해서 식량을 부락에서 얻었는데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지요. 순순히 식량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혹 감춘 경우에는 찾아서 가져오기도 하였어요.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는 했지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산에서는 아사, 타사, 동사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사는 운동을 통해 극복하고 아사도 참을 수 있었지만 전투에서 동지를 잃는 것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산에서 네 번의 겨울을 보내고 보니 손발이 동상에 걸리고, 자고 일어나 보면 얼어죽은 동지들이 옆에 있는 산생활에서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뜨거운 동지애였다.

"동지애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우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투쟁과정에서 얻은 동지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52년 겨울 내가 다리에 총상을 입을 때 옆에 있던 동지 두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동지' 하며 쓰러질 때의 심정…."

정전 협정이 맺어진 후 대대적인 빨치산 토벌이 시작되자 보충력은 없고, 소모력이 늘어가는 상황에

나만 용케 살아났습니다.
죽어간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산에 있던 동지들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국은 필연코 평화적인 조국 통일이 달성될 것입니다.
필연이며 확신입니다.

서 빨치산의 규모는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53년 9월 호남 지구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5사단장 한신이의 진두지휘로 토벌작전이 수행되었다. 잡힌 빨치산은 남원으로 집결되었다. 54년 초 남은 빨치산들은 이상률 위원장이 이끄는 조와 지구당 부위원장 겸 부대장인 서순정이 이끄는 조로 나눈 후 지하에 비트를 만들고 투쟁에 들어갔다. 그 해 3월 서순정의 소대원들은 국군에 발각되는데 당시 16명이 생포되고 1명은 사망하였다. 체포되자 특무대의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무작정 몽둥이로 때린 후 취조를 하였다. 결국 54년 4월 25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4월 27일 대구형무소에 수감되고, 선생님보다 1주일 늦게 체포된 이상률 위원장은 15년을 선고받는다. 당활동보다 빨치산 활동을 더 중시하던 분위기였기에 위원장이던 이상률은 15년을 선고받은데 비해 서순정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53년 정전 협정 내용 중 정치회담이 있었고, 곧 통일이 된다 된다 하는 분위기였기에 곧바로 사형시키지 않았고 무기로 감형되었다가 후에 다시 20년으로 감형되었다. 54년 4월부터 74년 4월까지 20년의 수감생활이 젊음과 함께 이어졌다. 54년 대구형무소에서, 62년 대전형무소로, 69년 광주형무소에서 생활한 후 출소하였다. 20년의 기간동안 가난한 누이 둘과 아버지가 계셨지만 변변히 면회 올 처지도 아니었기에, 수감생활의 외로움을 함께 생활하는 동지들과의 정으로 극복하였다.

대전형무소에서는 미국에서 말먹이로 쓰는 겉보리를 껍데기도 벗기지 않은 채 그냥 밥으로 주어 씹을 수조차 없었고, 새조개라는 붉은 조개 썩은 것을 그냥 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형무소 용도과장 3년이면 집이 한 채 생긴다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만큼 수감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은 모질고도 힘들었다. 선생님 또한 20년 옥중에서 간과 심장을 많이 상하셨고, 어깨에 통증도 많으시다.

74년 출소 후 누이 집에 머물며 따로 몸을 추스릴 형편이 못되었기에 야생 동물을 잡아먹으며 6개월 정도 생활한 후, 가구점에 취직하여 리어커로 가구를 실어나르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 때 조카의 소개로 지금의 사모님 김선옥(56세) 여사를 만난다. 결혼 후 상경하여 과일 장사, 복덕방 등을 하며 자식 셋을 모두 대견스럽게 키우셨다.

"내가 지금까지 집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단 말 한 적이 없지만 내가 장가를 잘갔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집사람이 나에게 늘 '오래 사세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 소원을 여쭈니 오로지 통일이시란다.

"적들과 싸울 때 새파란 딸, 자식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내가 총 맞을 때 두 명이나 쓰러졌습니다. 나만 용케 살아났습니다. 그런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산에 있던 동지들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국은 필연코 평화적인 조국 통일이 달성될 것입니다. 필연이며 확신입니다. 청년 학생들이, 전민중들이 총단결하여 빨리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되도록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나도 싸울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생활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젊은 날의 객기' 내지는 '젊은 날의 열정' 이라 하며 당시를 폄하한다. 서순정 선생님께서 50년 전의 모습으로 그 후 50년을 지탱한 그 힘은 역사에 대한 신념과 실천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은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지도부는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은 지도부를 믿으며…

이승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머릿속에 온통 전쟁 생각뿐인 한 살 상무기 장사꾼의 '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다. 오만하고 호전적인 그의 입방아가 지나치리만큼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그 끝이 보이는 건 아마도 그로 인해 오히려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와 반미감정이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층 고조되어가고 있음이 눈에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차디찬 겨울나기가 힘에 겨워도 인내할 수 있는 건 그 끝에 어김없이 와주는 봄기운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게다.

그런데 여기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기나긴 싸움을 진행해오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시그네틱스 노조이다. 정식 이름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시그네틱스지회' (이하 '시그노조').

며칠 전 인터뷰를 위해 시그네틱스사 안에 마련된 농성장으로 향하던 나는 지금으로부터 십여년 전 노조민주화, 노조위원장 직선제 등을 위해 활동하던 당시의 그곳 노동자들을 떠올리며 한없는 착잡함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수십년 동안 지켜온 노조인데 이제는 그 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270여일 째 철야농성을 벌여야하는 현실 앞에서 이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의 기초라도 마련된 사회인지조차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아침 여섯 시쯤 일어나 작은아이 우유먹이고 큰아이와 신랑 아침밥 해주고 신랑 출근시킨 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 맡기고 부랴부랴 9시까지 농성장으로 집결해요. 오후 늦게까지 투쟁하고, 맡긴 아이들 다시 찾아 집에 가면 놀아달라는 큰아이의 보챔 속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게 되죠. 다 하고 나면 밤 11-12시가 다 됩니다… 오늘 아침엔 작은아이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군요. 감기가 또 도진 거에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애들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현재까지 농성대열에 굳건히 함께 하고 있는 110여명의 조합원들 중 80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기혼여성 조합원들 중 한 분의 하루 일과이다. 그나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있으니 조금은 낫다고 해야하는 건지… 그 마저도 없는 아줌마 조합원들은 아이들 손을 붙잡고 함께 농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수년 전 회사측과 힘들게 싸워 만든 소중한 어린이집(직장 탁아소). 조합원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며 맡기는 아이들 40여명을 돌봐주던 이곳을 회사가 작년 말부터 계속 폐쇄하겠다고 하며 보육교사를 전원 해고시킨 것이다.

시그 노조는 67년에 국내의 외자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한국시그네틱스 분회를 결성하여, 결성초기부터 회사측의 분회장 해고 및 노조와해 기도에 대응해 노조사수 투쟁을 전개해온 듬직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강서구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시그네틱스는 1965년경 필립스에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다국적

기업)이었는데, 95년도 들어 국내 거평그룹이 인수하였다가 이어 2000년도에 영풍그룹에서 인수한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조립업체이다.

공장이전, 구조조정을 핑계로 노조파괴와 정리해고를 위한 탄압을 자행하는 영풍그룹에 맞선 전면파업이 2월7일이면 200일째가 된다.

"98년 거평그룹 계열사 당시 과도한 부채로 상여금 반납 등의 고통분담을 강요당하며 거지반 거들이 난 상태에서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2000년 영풍그룹에서 인수한 이후 회사는 회생의 기미가 보였지만, 정작 청춘을 바쳐 일한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서울 염창동공장 조합원들의 노동과 희생을 담보로 세운 파주의 공장은 이미 97년 세울 당시부터 생산직을 전원 하청 비정규직화했습니다.

서울공장 부지를 팔아 빚을 갚고 파주공장으로 전원 이전한다는 98년의 합의는 영풍그룹이 인수한 이후 '노조 파괴'를 위해 무시되었습니다. 안산공단에 영풍그룹 계열사 땅을 사서 조그만 공장(제3공장) 건물 하나 지어놓고는, 파주 이전은 안되니까 안산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생산계획과 고용안정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안산으로의 이전은 '노조파괴와 정리해고'를 위한 음모였음이 2001년 5월말에 입수된 회사측 시나리오 문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조합원들은 5월11일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7월2일 회사측이 전면휴업에 들어가자 7월23일부터 일방적 안산 이전에 맞선 전면파업에 돌입,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8월9일, 생산장비를 빼내가기 위해 교대 철야농성으로 60여명이 잠자고 있던 염창동 공장 농성장에 250여명의 용역깡패, 150여명의 회사 구사대, 그리고 1000여명의 폭력경찰이 침탈을 감행했습니다. 처절하게 짓밟히고, 성추행까지 당하며 공장에서 내쫓긴 조합원들은 악으로 깡으로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그네틱스, 산업은행, 영풍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임금에 이어 집까지 가압류를 당한 상태입니다. 파업참여 조합원을 전원 징계위에 회부한 회사측은 2002년 1월16일부로 파업참여 조합원 전원을 해고시켰습니다. 현재 지회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 교섭권을 위임받은 금속연맹 이석행 부위원장님에 대한 체포영장, 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추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7일, 정혜경 지회장이 긴급체포 구속되어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영풍그룹이 인수하면서 시그네틱스와 맺은 계약에 염창동공장의 모든 기계와 인원을 안산공장으로 이전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런 계약을 맺으며 영풍은 안산공장에는 가건물과 노후화된 기계 장비만을 두고 대부분의 최신 기계와 공장은 파주에다 새로 지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몇몇 업체가 노조의 존재 때문에 인수하지 못하고 있던 시그네틱스를, 파주공장에 있는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안산공장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포기할 생각으로 영풍이 인수한 것이다. 한마디로 머리를 쓴 것이었다.

지난 3년여간 뼈를 깎는 듯한 고통분담의 수용은 회사를 살려 파주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한다. 허나 영풍그룹의 장형진 회장은 삼성의 모 회장을 닮았는지 노조인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는 사람이라 함에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파주공장의 비정규직 무노조 운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에도 눈 하나 꿈쩍 안할 기세인 듯하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월급 한번 못 받으며 투쟁해온 조합원들의 기세 역시 무시 못할 힘으로 변하고 커져왔다.

"보통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게 되는 여성들이 독립

심을 갖는다는 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자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이 생겼지요. 이제 중도하차 하는 건 나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요. 용납할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정의는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파주공장으로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이지요."

입사한지 십년도 훨씬 넘은 노조 편집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조합원들이 많이 변했어요. 문제의 본질과 정황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싸우더라구요.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힘든 싸움이 될텐데... 조합원들은 투쟁을 통해서 배우고 변하고 크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노조위원장 직선제를 쟁취한 후에도 늘 집행부는 내적 역량의 부족을 앞세우며 투쟁의 열기를 끊어왔었어요. 처음 농성을 할 때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었지요. 저도 집행부의 한사람이지만 조합원들이 지금 이런 의지라면 끝까지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도부는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원들은 지도부에 대해 서로 굳은 믿음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낮에는 주로 영풍본사 앞에서, 그리고 밤에는 조를 편성해 염창동공장의 경비실을 개조해 만든 농성장을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단다. 작년 용역깡패와 경찰들이 농성장을 치고 들어 온 후 엉망이 된 그곳을 추운 겨울 아내의 철야농성을 걱정한 조합원 남편들이 연탄보일러도 놓고 부엌도 만들고 깨진 유리창에는 비니루도 씌워 주었다. 주로 남편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 가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과 지지농성이 투쟁과정에서 또한 큰 몫을 하고 있다.

노조 총무부장이 투쟁 100여일째 되던 날 모 인터넷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에 대해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 싸움 시작할 때는 자신의 일자리를 찾겠다는, 나중에 파주에 못가더라도 보상금 좀더 받아보자는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바램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합원 교육도 받고 투쟁 과정에서 하나하나 고비도 넘겨가면서 조합원들이 이제는 나만의 싸움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와의 최소한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회사측의 부당함과 반인륜적인 것에 절대 굴할 수 없다는 오기와 결의가 생겨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살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세상이 계속 굴러가게 놔둘 수는 없다는 마음을 갖고 싸우게 되었어요.

사회를 보는 눈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주한미군철거가 등의 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싸움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게된 거죠. 한마디로 내 일자리 찾겠다는 투쟁에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알고 생각하며 싸우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또한 서로간의 애정 즉 동지애가 싹트고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게 되었지요.

조합원들이 그만 접자고 할 때까지, 우리가 이길 때까지 할거예요. 조합원들이 이길 때까지 접지 않을 것임이 틀림없으니 그날까지 우린 계속 싸울 겁니다."

시그 노조의 그 길고도 질긴 투쟁의 중심엔 역시 정혜경 노조지회장이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다. 전남 영광이 고향이고 올해로 서른다섯살이 된 정혜경 님은 재작년 12월에 16대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천막농성 할 때였지요. 지회장님이 그 추운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천막을 돌며 조합원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었어요. 부지런하고 궂은 일까지 마다 않는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말을 아끼고 절도를 지키며 끈기 있는, 그리고 씩씩한 사람이지요. 97년에 입사해 교육부원에 이어 대의원 활동을 하다가 지회장으로 선출되었어요."

하루도 거름 없이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영등포구치소로 면회를 가고 있는데, 그의 꿋꿋함이 조합원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어주고 있음에 틀림없는 듯하다.

오늘 아침, 시그노조에 큰 일이나 집회가 있을 때 달려가 비디오 촬영을 하여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김도균 후원회원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아직 어둠으로 가득한 새벽 6시경, 150여명의 철거용역깡패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들이닥쳐 염창동공장 농성장을 침탈 철거하고 어린이집 마저 불법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두 번째 공장 침탈이다. 어

린아이들마저도 길거리로 내몰아 가는 매몰찬 영풍자본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인터뷰 갔던 날, 며칠 전 영풍으로부터 처음으로 영풍, 시그, 노조 대표로 구성된 '3자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며 눈빛을 반짝이던 그들의 모습에, 지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을 그곳 농성장 모습이 겹쳐져 떠오르며 못내 가슴이 아려온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연대의 몸짓은 시그의 이런 모든 상황과 부당함을 주위에 알려내어 여론화에 보탬이 되어주고 또한 영풍계열사 제품 불매운동 등은 최소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줍잖은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투쟁을 해야 할지, 또 어떤 탄압이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위협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목숨과 인생을 걸었다' 는 한 기혼여성조합원의 외침처럼 당당한 노동자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한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 오른쪽의 글은 시그노조 농성장에서 퍼온 글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란 말인가?

엄마와 헤어져 머나먼 시골에 1年을 보내야만 했던 우리아이들
그래도 어린이집이 있어 돌잔치를 보내고 그렇게도 그리던
엄마 품에 돌아와 이제야 엄마라고 말하고 응석부리는 우리아이들
어디로 가야하나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땐 베개를 껴앉고
울면서 지야만했던 눈물 자국이 그려져 있는 이부자리들
엄마의 얼굴이 생각날 때면 얼굴을 그려놓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보고 또 보고 해왔던 스케치북

엄마의 젖가슴이 그리워질 때면
장난감 하나 하나를 만지고 빨면서
정이 깊었던 우리아이들의 장난감들

이제는 한 무더기의 쓰레기가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말못하고 눈만 깜박거리며 바라만 보는 우리아이들에게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엄마들은 미워도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저지른 이 미친 만행은 무슨 법이 적용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해맑은 미소로 뛰어 놀 수 있을는지
관련 분야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그 아이들이 이 나라의 장형진 같이 못된 놈들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양심수, 오늘은 후원회원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김도균 회원(오른쪽 끝)

'이런 회원' 취재 사상 처음으로 뒤풀이가 아닌 본 판부터 술을 먹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회원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소주 한 잔 꼭 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항상 말없이 성실하게 후원회를 도와주는 회원에게 간사가 술 한 잔 대접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는 새벽에 한국시그네틱스노조의 농성장이 공권력으로부터 침탈을 당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하루종일 노조원들과 함께 투쟁하며 영상 촬영하다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필자를 만났다. 그래서, 더욱 맛있는 안주에 술 한 잔이 그리웠다.

김도균 회원은 1973년 음력 9월25일에 충북 제천에서 1남1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할머님께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여서 제천에서 제일 좋다는 제천성당 성모유치원을 몸이 아파서 2년씩이나 다니고 아홉 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가족과 함께 서울 수유리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그 곳에 살고 있다. 지금도 할머님를 모시고 사는데 할머님께서는 96세의 연세에도 혼자 성당에 다닐 정도로 건강하시다고 한다.

1993년 강원대 생물학과에 입학한 그는 1995년 10월 초 어느 날 새벽 "전 · 노 구속과 5.18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춘천 민자당 지구당사무실에 페인트 병을 던지며 유인물을 뿌리는 등 기습시위를 하였다. 시위에 성공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 함께 가던 선배가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하여 쉬고 있는데 양쪽에서 경찰 순찰차가 나타났다고 한다. 일부 일행은 사라지고, 그는 선배와 후배 등 일행 3명과 함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한 척 있는데, 이들을 보고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들의 증거는 유일하게 후배의 가방에서 나온 손수건에서 난다는 신나 냄새였다. 하지만, 결국 조사 도중 누군가의 실토로 기습 시위는 밝혀지고, 경찰들은 옛날 지역통일선봉대활동과 화염병시위 때 체증한 사진들까지 제시하며 그를 '화염병 및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시켰다. 다행히 12월말 1심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석방되었다.

석 달을 꼬박 춘천교도소에서 살다 나온 것이다. 그가 달고 있던 수번 2021번은 지금 현재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어있는 학교 후배인 2001년 강원대 총학생회장 박영수님이 달고 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양심 억압의 악순환' 인가? 그는 당시 권오헌 회장님 명의(당시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라는 단체명을 기입하면 영치금을 받아주지 않았기에 개인명의로 해서 보냈다)의 영치금을 받고 고맙다는 생각에 맛있는(?) 음식을 사먹었다고 한다.

그에게 학생운동을 왜 했냐고 당연하게 질문했다.

"누구의 권유는 아니었고… 1학년 1학기 때 과 동기들과 동아리를 찾다가 풍물을 치는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뭔가 소리에 끌려서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1학기 때는 과에만 있고 거의 활동을 안했는데, 농활 때 문예

선전팀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과 함께 창작도 하고 풍물도 치면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2학기 가을 '쌀 수입개방 반대' 투쟁을 하며 농민대회에 자주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지역풍물패들과 함께 문예선전대 활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나 봐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해 겨울 한 여선배가 술자리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던 질문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는 아직 휴학 중이다. 석방 직후 1996년에 군대 가고, 1998년에 제대하여 줄곧 지역문예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풍물을 쳤다. 지역에서 졸업한 선배들과 풍물패를 만들어 활동을 한 것이다.

"숫기가 없었어요. 친한 사람과는 데게 친한데… 풍물이 친구들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풍물판이 벌어지면 왠지 힘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별로 말이 없는 이 친구의 눈빛에는 무언가 '끼' 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그러다가 풍물에도 재미를 느꼈지만, 풍물을 하면서도 계속 뇌리에 있었던, 어릴 때부터 그림, 영화 등에 관심이 많았던 또 하나의 끼를 누르지 못한 체 영상활동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물론, 지역문예운동하는 선배들과 영상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2000년말 상경했다.

그 후 서울 집에 있는데, 설날에 대전에 사는 조카가 찾아왔다.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그와 함께 중앙극장에서 하는 '공동경비구역 JSA' 를 보러 명동에 가게 되었다. 명동성당 앞을 지나는데 수의를 입은 한 여자 분이 유인물을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순간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본 명동성당 정치수배자 농성단이 떠올랐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하루만 도와주자" 며 후배와 같이 카메라를 집어들고 국가보안법관련 정치수배자 명동성당 농성단에 찾아갔다. 오랜 정치수배자 진재영을 만났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이정태 회원도 만났다. 하루 농성을 마치고 정리집회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한다. 그 날의 감동과 소식을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아쉬워서 자신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등에 올렸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 명동성당 홈페이지사업 및 영상자원활동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자원활동 속에서 그는 여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원들을 만나고, 결국 간사의 권유로 2001년 가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학교 선배인 양계숙 회원이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활동을 하며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더 친근감이 느껴졌다고 한다.

신입회원인 그가 느끼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대한 단상' 들은 이렇다.

"시간이 짧아서 아직 후원회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일은 도와주는데 사간을 많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부담이 되요. 일 있을 때만 가는 것 같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하면 민가협 어머님들,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 그리고 장기수선생님들이 떠올랐는데. 막상 활동해보니 뒤에서 후원하는 회원들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서 더 큰 힘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바쁜 삶에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도균 회원은 현재 한국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영상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성실하고 당당하다. 저번 일요일에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역사교실을 찍어주고, 또 전국연합 대의원대회를 촬영하려 바쁘게 움직였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손해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안정적으로 착실하게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가치관 그런 것 없다며 쑥스러워하는 그의 얼굴에 풍기는 풋풋한 미소는 정말 멋있다. 묵묵히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의 희망은 많을 것이다. 김도균 회원의 미소는 우리에게 소중하며 아름답게 다가오는 '희망의 미소' 이다.

이제 두 달가량 남은 형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혜정 동지에게

고마운 혜정동지의 편지를 기쁘게 읽었습니다. 혜정 동지께서 보신 새해의 붉은 해가 이곳 15척 옥담을 넘어서도 환하게 비춰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해의 첫 시작은 긴장감으로 충만하지요. 지난 해에 이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해에는 못 다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겠노라는 결의와 함께 또 다른 계획이 추가되겠지요.

그렇게 1월을 보내노라고 끙끙대다 보면 어느덧 2월의 달력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 내들의 일이 아닐까요? 늘 자신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이다 보니 자신의 일은 뒷전에 처져 늦게서야 허겁지겁하시는 분들이 또한 동지이겠지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동지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움이 마음속에서 물결쳐 옵니다. 단지 마음만 있다 보니까 다른 보답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지요. 주는 대로 넙죽하고 받는 것이 어느덧 습성화된 듯해서 더욱 그렇고요. 저는 밖에 계신 여러 동지들의 사랑과 염려 덕분에 24개월 동안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제 두 달가량 남은 형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수많은 민족적, 사회적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시간이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으니 그 일을 더욱 열심히 할 궁리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저 역시 혜정 동지께서 느낀 감정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욱 도가 지나친 호전적 성격으로 해서 언제 우리 땅에서 불길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에 들끓는 분노조차 차분해져 옵니다. 지난 신5027 작전 계획에 따른 전쟁 분위기의 고조와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민족은 자기의 힘으로 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에 7천만이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취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제"에 대한 겨레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그 출발이랄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는 축제와 월드컵대회 등으로 미국의 전쟁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불질을 할지 모르는 부시의 미치광이 성격을 국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내년 일출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혜정 동지와 함께요. 그럼 후원회 모든 동지들과 함께 늘 건강하시고 보람 속에서 기쁨을 나누시길…

2002.1.20 전주교도소에서 이 성 우 드림

● 이성우님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공동의장님으로 1999년 10차 범민족대회때 방북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아 지금 전주교도소에서 수번 2007번으로 수감중입니다.

아참!! 저희 공부방 아이들을 소개했었나요?

담장을 넘어 날아온 편지를 받아 본 것이 얼마만인지…

참으로 오랫동안 양심수 동지들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고 살았다는 생각에 반가움보다는 반성이 앞섰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새해의 결의를 다지며 시작한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공부방 아이들은 벌써 겨울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했지요.

아참!! 저희 공부방 아이들을 소개했었나요?

맞벌이 노동자 가족 아이들이나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특별활동도 하는 곳이지요. 제가 2월부터 이곳에서 실무를 하게 되어서 요즘은 공부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오전 시간이 좀 여유롭지만 아이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면 시계 바늘이 갑자기 빨리 돌아갑니다.

모두모두 귀여운 아이들이지요. 이 곳 분들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매일 아이들을 만난답니다.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된 일이지요.

요 며칠 몸을 움직일 수 없이 많이 아팠습니다.

위장이 붓고, 장염도 조금 있다고 하더군요. 이틀을 꼬박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 등지고 누워있었지요. 덕분에 푹 쉴 수 있었지만 요 사이 좀 무리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 한두 끼는 먹지 않아도 펄펄 날아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있으면 몸에서부터 반응을 보이니,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와 몸조리하지 않은 것까지 마음에 걸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하지 못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텐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조국을 위한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도 출소 후 몸조리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요?

준비 잘 하셔서 나오셨으면 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때까지 건/투!!

2002. 2. 9 이 혜 정 드림

● 이혜정님은 1995년 6차 범민족대회때 방북하여 징역 3년형을살고 출소한 뒤 학교에복학하여 현재공부방 활동 등을 하며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간다.

김수룡 출소장기수선생님

임오년 새해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첫 산행날이다.

내가 후원회 산행에 동참한 것은 95년 되던 해부터였다고 생각된다. 그 때 지금 일산에 계시는 신현칠 선생과 같이 어떤 모임에 참가했다. 그 모임에서 권오헌 선생이 가까이와서 주소와 이름을 물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본명을 말해 본 일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오랜 세월 이산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시련과 고난의 행군을 할때 눈도 멀고 귀도 먹고 말문을 닫고 살았다.

주변에 항상 감시자가 붙어 따라다니곤 하던 시절이어서 길을 갈 때에는 앞, 뒤를 살펴 보는게 습관이 되었다. 그러던 내가 지금은 민가협 회원들과 같이 하는 날이면 뒤돌아 보지도 않는다. 앞만 보고 간다.

나는 산행하는 날이면 그렇게 즐거울수가 없다.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즐겁고 힘을 얻는다. 그래서 후원회가 산행하는 날은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날씨가 약간 흐리고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였다.

약속장소인 북악파크로 갔다.

낯익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은 특히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었다. 전날 목요집회에서 조순덕 어머니가 가까이와서 이번 산행에 꼭 오시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갔다.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 봐도 영영오지 않았다. 참 무심하기까지 했다. 우리 일행은 모두 15명이 되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올라갈수록 가랑비는 눈으로 변하여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산중턱으로 올라가니 함박눈으로 변하여 쏟아졌다. 삼라만상이 하나의 색으로 갈아 입었다. 세상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 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우리 민족도 이렇게 하나가 되었

으면 하고 기원했다.

여느 때 같으면 산에서 점심을 먹었을테지만 오늘은 눈밭에 앉아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 내려가서 식당에서 먹기로 하고 하산하였다.

김교영 선생이 내려가서 자기 집에서 점심을 해먹자고 했다.

우리는 김교영 선생댁으로 가면서 길음시장에서 국거리를 사들고 가서 동태찌개국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참가한 회원 중 누구의 솜씨인지(이승미, 양계숙, 한수정) 참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고나서 후원회 간사인 이창희가 시사주제인 '미사일 사정거리 180마일 요구가 클린턴 방문 막았다'를 낭독하고 나서 질문,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권오헌 선생이 현 정세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생각해 보니 산행하는 날, 정릉 쪽으로 내려오는 날이면 꼭 김교영 선생댁에서 번번히 신세를 졌다. 김교영 선생 부인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신세를 졌다.

교영 선생 만세다!

함박눈이 내린다
소리없이 내린다
온 세상이 흰색으로 내린다
함박눈으로
하나의 세상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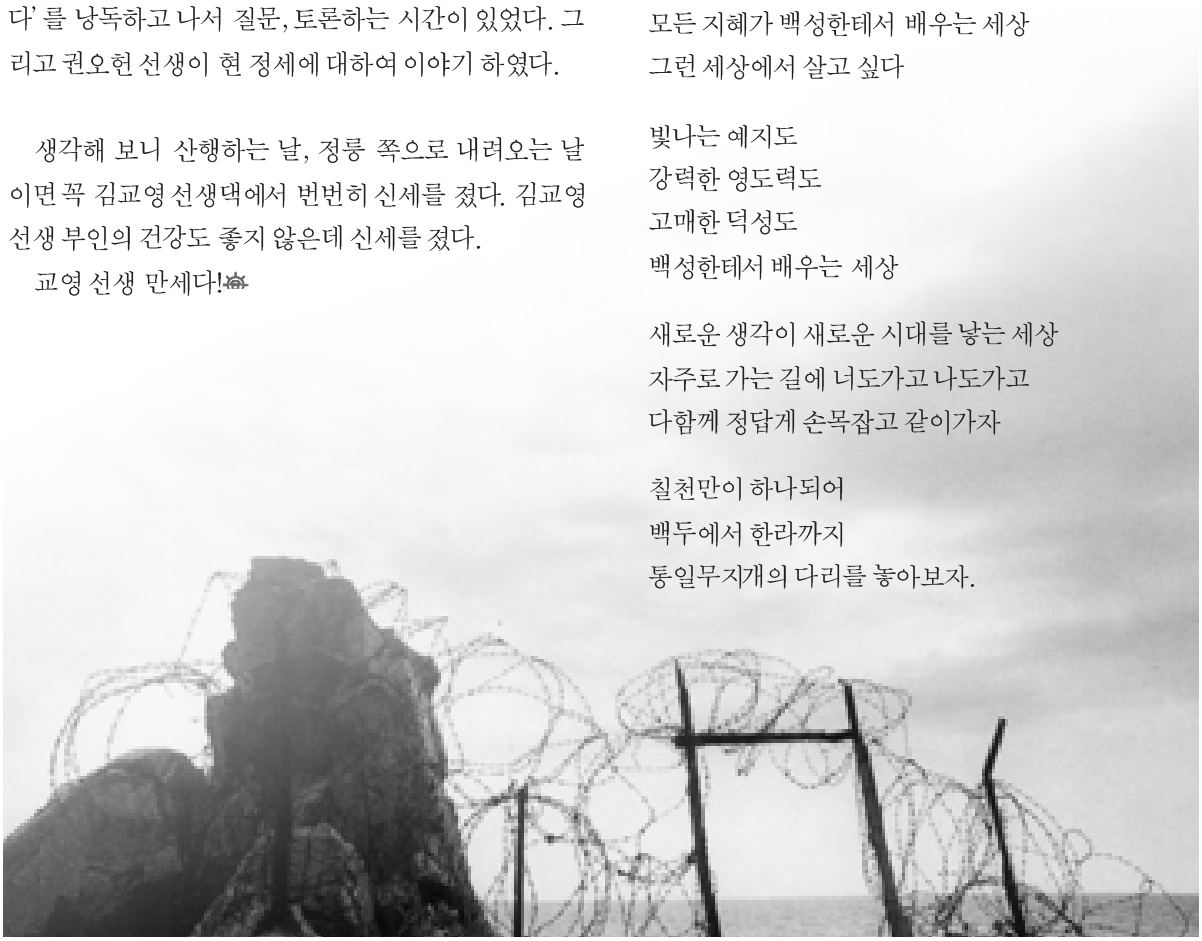
이제는 말하고 싶다
속시원하게 말하고 싶다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
떳떳하게 말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세상
내가 만들고 꾸미는 세상
모든 지혜가 백성한테서 배우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빛나는 예지도
강력한 영도력도
고매한 덕성도
백성한테서 배우는 세상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시대를 낳는 세상
자주로 가는 길에 너도가고 나도가고
다함께 정답게 손목잡고 같이가자

칠천만이 하나되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무지개의 다리를 놓아보자.



봄마중
– 입춘에 길을 묻다

유병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민족21' 기자

겨울이 한창인 달력에 입춘이라
봄은 오지 않았는데
벌써 '입춘' 인가
사람들은 갸웃거린다

동장군 호령소리 높은 겨울 한복판에
입춘이 자리한 건
봄이 겨울의 한가운데서 시작하는 까닭

그렇다 봄은
겨울이 다 끝나고 오는 게 아니다
지천으로 피는 꽃들과 더불어
사뿐사뿐 걸어오는 건 더더욱 아니다

봄은
겨울 눈 속에서 찬바람 맞으며 싹튼다
어둠과 싸우며 아침이 오듯
봄은 그 모든 겨울과 싸우며 피어나는 것이다

춥다고 숨어들지 않고
오늘이 황량하다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에
겨울은 추울지라도
그 겨울에 태어난 봄은 따뜻하다

봄의 첫 모습을 보았는가
삽날도 들어가지 않는 언 땅
그 땅을 온몸으로 싸우며 뚫고 일어서는 새싹

날씨를 탓하며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선
주전부리로 날을 보내는 사람은,
날 풀려야 길이라도 나서지 않겠느냐고
제법 그럴싸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은
봄을 맞지 못한다

그는 겨울 속에 숨은 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그가 여전히
겨울에 사는 까닭이다

봄이 얼만큼 왔느냐고 묻는다면
얼어붙은 강바닥에서
가장 낮게 흐르는 강물로부터 봄이 오듯
오늘도 추운 마루장에서
모포 한 장으로 겨울을 나는 사람들
세상의 가장 낮은 겨울에 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하고 싶다

추운 현실과 맞서는 정직함과
안일한 자기 욕망을 버리는 용기를
하루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본강의를 압도했던 뒤풀이

김현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새해의 계획을 세운지 한 달여, 언뜻 느껴지는 봄기운에 다소 긴장이 풀어질 즈음 '설'이 있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보는 2월.

입춘을 하루 앞둔 2월의 첫 일요일,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약간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오리엔테이션과 제1차 역사강좌를 듣고 난 뒤, 단편적으로 무의미하게 나열되어 있던 교과서적 지식들이 역사의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면서 질적으로 재편성되고, 새롭게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제국주의가 근대에서부터 이미 야만성과 침략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불철저함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속되는 질곡을 초래했음을 뼈저리게 재인식하는 등 피상적인 역사지식을 하나하나 되짚어 천착해나가는 강의내용은 생동감이 넘쳤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강의에 대한 아쉬움은 자연스레 뒤풀이로 이어질 수 밖에…

일정한 주제없이, 물리적 거리도 좁게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부딪히며, 특정한 대화상대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대로 화제를 꺼내고 그에 대해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벼이 오가는 중에 서로를 더욱 깊고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그것이 뒷풀이 문화의 매력이지 않겠는가.

강의 시간에 잠시 언급되었던 사회구성체담론, 북한 역사관, 미시사에 대한 각자의 의견개진으로 말문을 트고나서는 자연스럽게 한상권교수님의 투쟁사가 전개되었다.

계급적(개인적) 이익과 공익 둘 다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계급성에 기반한 운동을 할 때, 지속적이고도 역동적인 힘을 창출할 수 있고 더불어 개인적 이기심도 장자의 말을 인용하여 대승적 이기심으로 승화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셨다.

몸소 투쟁 속에서 체화된 소중한 많은 말씀들이 생생하게 가슴으로 전달되고.

중간 중간에 에피소드를 들을 때 모두들 포복절도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온 몸으로 시대의 불의와 맞선 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사회풍자적 해학이었다.

개인적으로 2002년은 한상권교수님의 역사교실로 기억될 것 같다.

이번 강의에서 잡은 화두를 가지고도 벅찬데, 다음달에는 또 어떤 화두가 던져질까? 약간은 상기된 모습으로 3월의 역사강의를 기다린다.

'후원회 소식' 은 조선일보의 반민족 · 반민주 ·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대해 회원들에게 특집으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회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조선일보' 로 대표되는 수구언론의 악성 여론몰이에 의해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탄압이 은폐되고, 양심에 대한 억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일보' 로 대표되는 수구언론이 바로 양심수의 양산에 크게 작용했음을, 양심억압의 공범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기협 양심수후원회는 이 땅의 양심수의 든든한 벗으로 본연의 사명에 의해서 양심수들을 억압하는 데 공히 앞장섰던 수구언론 '조선일보' 에 대한 역사적인 민간법정이 열림에 마땅히 환영을 보내며, 수구언론 척결의 의지로 이 기쁜 보고를 모든 회원들께 올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글을 펴서 전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유죄판결 왜 침묵하나

지난달 30일 조선일보사가 그들의 반민족 · 반통일적 언론행태로 민간법정에 세워져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언론의 심장' 인 언론회관에서였다. 거대 언론사가 그 보도행태로 국내의 민간법정에서 심판받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로, 역사 바로잡기 면에서나 잘못된 언론행태의 단죄 면에서 그 의의가 대단히 크고 중요한 사건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린 언론사에 대한 민간법정은 언론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기에 1200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민간법정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언론계의 부정이나 비리, 또는 허물에 대해서는 담합하여 보도하지 않던 관행을 이번 이 사건에서는 깨버리고, 이번 만큼은 보도하겠지 하는 큰 기대를 안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한국방송〉 9시뉴스를 지켜봤으나 그날 열린 민간법정 기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에스비에스〉 뉴스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단다.

다음날 주요 일간지들을 모두 살펴봤다. 〈한겨레〉의 보도를 제외하면, 〈대한매일〉만 25면에 2단기사로 간단하게 알렸을 뿐,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이 역사적 중요한 기사를 담합하여 묵살해 버린 것이다. 한국언론의 고질적 악습이 21세기의 문명시대에도 되풀이 된 것이다.

동종업종이란 의식의 발로였을까. `우리' 에게도 허물이 많아 조선일보사쪽의 보복이 두렵거나 그 언론권력의 힘에 지레 겁먹어서였을까. 그도 아니면 아직까지도 친일파의 장막이 두텁게 감싸고 있어 친일 · 반민족 문제를 기사화하기가 껄끄러워서였을까. 어쩌면 이들 여러가지가 상승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의 민간법정은 한국언론계의 `심장' 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주요언론은 이 사건을 기사화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소임이 있었다. 이런 소임을 저버리면서까지 보도를 안한 것은 참으로 서글픈 한국언론의 자화상이다. 언제쯤 한국언론이 이런 못된 고질적 악습을 깨버리고 발전된 언론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인가.

장문하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한겨레 펌)

조선일보의 반민족 · 반민주 ·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판 결

피 고 인 조선일보
서울 중구 태평로 1-61
대표이사 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사장 방상훈

수석검사 김인회
검사 임종일, 최규엽, 김승교

변 호 인 최민희, 김동민, 오한흥

주 문

1. 피고인 조선일보는 기소된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 모두에 대하여 유죄.

2. 민간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에게 아래 사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피고인은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보도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하여 사죄하라.
나. 피고인은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보도기사의 작성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직원을 징계하라.
다. 피고인은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 유

1. 재판관할권 및 처벌근거

조선일보의 반민족 ·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이하 헌장이라고만 한다) 전문에 의하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이념에 입각하고 해방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민법이라고만 한다) 등의 정신을 계승' 하여 헌장을 채택함을 밝히고 있고, 헌장 제2조는 민간법정이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 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반민법은 건국헌법 제101조(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되었다. 건국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승계하

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일제의 가혹한 통치와 민족압살정책에 항거한 민족독립투쟁의 역사속에서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민족절멸의 위기에 빠뜨린 일제식 민통치를 야기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자, 적극 협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생활규범이며, 가치규범을 이루고 있는 지고의 헌법이념에 속한다.

건국헌법의 전문에 나타난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는 건국이념은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대한민국이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추구한 자주독립, 민족자결주의적 성격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민법은 비록 1951년 2월 14일 폐지되었으나, 일제 강압 통치의 멍에를 스스로 타파하고자 했던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보면 반민족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반민법이 그 후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반민족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형법상의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와 이적의 죄(위 특례법 제1, 2조)"이다. 그리고 위 특례법에 근거하여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전두환 등 5 · 18을 저지른 장본인들을 처벌했다.

사건 관련자가 제기한 위헌 심판에서 "이 사건 반란행위 및 내란행위자들이 반란행위 및 내란행위를 통하여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민주주의가 장기간 후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으며, 전국민의 자유가 장기간 억압되는 등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도 심대하였다. 집권과 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줄기찬 요구이자 여망이며, 작금의 시대적 과제이다.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이 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 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합헌성 인정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히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조항이 공소시효의 완성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법률적 이익에 대한 위와 같은 미약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에 현저히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년 2월 16일 선고 96 헌가 2, 96 헌바 7 · 13병합)"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반민주행위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단죄하는 특별법이 있었으며, 반민주행위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할 정도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헌법 전문은 우리 민족에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절박하게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없이 진정한 민

주개혁과 민족 발전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 현실에 편승하여 남과북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민족 분열을 조장하거나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반통일행위임과 동시에 반민족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통일행위 역시 그 정도가 심하면 이는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되어 처벌할 필요성이 생긴다 할 것이다.

라. 이처럼, 우리 역사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구체적인 판결을 통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민족 · 반민주 · 반통일 행위자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단죄하여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민간법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채택된 헌장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은 민주주의와 참다운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 꽃피움으로써 헌법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정설립을 발기하거나 동의,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

2. 공소시효

헌장 제11조는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나타나 있듯이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3. 기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선일보에 대한 검사단의 기소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3 1독립만세운동 직후 무자비한 무단통치를 변경하여 조선 민중의 독립투쟁의식을 둔화시키고 민족해방투쟁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문화통치를 실시하던 일제에 의하여 창간되었는 바,

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가장 극심하게 탄압 받고 수탈 받는 시기인 1937년부터 1940년 폐간되던 해까지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1면을 털어 일본 천황부부의 사진과 찬양기사를 실어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찬양하고, 1937년 8월 12일부터 일본군을 '아군' 혹은 '황군'으로 표기하는 등의 친일 반민족언론행위를 하여 왔으며, 이는 기소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같다.

나. 1945년 해방이후 일재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5.16 쿠데타등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군사독재정부가 들어서자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하고 이에 기생하면서 성장하였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 박정희의 3선개헌을 영도적인 행위로 극구 찬양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항거한 자유민주인사들에 의하여 획득한 80년 민주화의 봄을 혼란기로 규정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그 뒤 광주민중을 압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을 국민의 영도자로 극구 찬양하는 등, 우리 사회가 해방이후 민주사회로 진전하기 위한 길목길목에서 이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앞장서서 반민주적 언론행위를 하여 왔으며, 이는 기소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같다.

다.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우리민족에게 제일의 과제는 평화통일이며, 평화롭게 민족이 하나됨이 없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1969년 이승복 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날조보도, 금강산 댐 관련보도, 잇따른 김일성 사망설과 관련한 오보, 성혜림 망명설을 통한 북한

정권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왜곡보도, 그리고 최근 벌어진 만경대 '보도' 파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민족이자 운명공동체인 북한을 곤경에 몰아넣고 통일인사와 통일단체, 세력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 음해와 왜곡을 일삼아 저지르며 남과 북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언론행위를 하여 왔으며, 이는 기소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같다.

라. 위와 같은 조선일보의 각 행위들은 헌장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일제 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제1호)"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 및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 채 유신정권, 전두환정권 등 역대 독재권력을 찬양, 미화하거나 그에 저항하여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 노력을 악질적으로 저해, 방해하는 반민주적 언론행위(제2호)" "분단현실에 편승하여 남과 북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민족분열을 조장하거나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심히 왜곡, 음해, 방해하는 악질적인 반통일적 언론행위(제3호)" "기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을 통일을 저해하여 민족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한 악질적인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언론행위(제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 배심원단에 의한 평결

헌장 제3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은 배심원단을 '민족 · 민주 · 통일 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와 언론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무죄 여부를 배심원단의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하고 있다.

헌장에 근거하여 설치된 배심원단은 피고인 조선일보에 대하여 검사단이 기소한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 각 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신중히 평의한 결과, 기소 행위 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하였다.

5. 권고사항

헌장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민간법정은 배심원단이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평결하는 경우에 이를 선고하며, 이와 함께 해당 피고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사죄, 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민간법정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피고인 조선일보가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 조선일보가 민족과 역사 앞에서 과거에 저지른 반민족 · 반민주 ·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참회하고 참다운 민족민주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2. 1. 30.

수석판사 고 영 구

판사 성 유 보

판사 오 종 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진짜 '악의 축' 은 누구인가
-전쟁책동 부추기는 부시 방한 반대한다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지난 6일 세종로 미대사관 옆에서는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 대북적대정책철회 /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 부시 미대통령 방한반대 제민주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이 있었다. 모두 603개 사회단체가 함께 한 이 합동기자회견에서는 미국에 대해 전쟁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정책 중지할 것을 비롯한 7개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었다. 수백명의 경찰병력으로 에워쌓인 채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주한 미대사를 만나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측은 대사를 만나는 것도, 항의서한을 받는 것도 거부했다. 이 오만한 자들이 지켜보는데서 (같은 겨레로 함께 모독받은) 단체성원과 경찰사이에 몸싸움이 이어지는 일은 더욱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이 날 합동기자회견을 갖게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악의 축' 을 말하며 이 땅에서 전쟁도발을 획책하고 있는 부시정권의 확전정책을 규탄하는 데 있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이미 2002년을 '전쟁의 해' 라고 떠벌인데서도 예고돼 있었다. 9 · 11사태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부당한 보복전쟁을 마친 미국은 그 더러운 승리감에 도취돼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필리핀을 거론했으며 이북에 대해서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고 이북과 이라크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신무기를 개발한다고 했었다. 이렇게 다음 공격 대상을 말하며 국방비 늘리기에도 열을 올렸다. 부시행정부는 2003년 국방비로 2002년보다 480억 달러가 많은 3790억 달러를 국방예산으로 의회에 내놓았으며 2007년에는 4510억달러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이같은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 10대 군사대국 가운데 나머지 9개국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 방대한 군사비는 쓸 곳을 찾아야했다. 그래서 전쟁은 미국의 존재양식이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상대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계유일의 군사력에 의한 세계지배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그리고 마침내 부시는 그 음흉한 전쟁책동의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 1. 29일 미 상 · 하 양원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이북과 이라크, 이란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 라며 세 나라를 '악의 축' (Axis of Evil)이라 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 고 했다. 2월 1일에도 '모든 대응수단을 다하겠다' 며 노골적인 협박까지 했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일 '한국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변화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에 우려하고 있다' 고 부시의 공갈을 받침하고 있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3일 폭스 TV 와의 회견에서 '이들 국가(이북, 이라크, 이란)는 미국과 미국의 국익,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 이라며 '이라크나 북한 같은 정권에 사정을 봐주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고 모독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다. 조지 테닛 중앙정보국(CIA)국장도 6일 상원 정보위 기조발언에서 '평양당국이 한반도를 북한의 통제하에 영구히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했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건설적인 대화와 의미있는 개혁을 꺼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태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언론까지 남북사이의 화해협력관계를 주제넘게 헐뜯고 있었다. 3일 〈워싱턴 포스트〉는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데도 한국정부는 여전히 북한

과의 외교를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대북정책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언동과 주장등은 이른바 동맹국이라면서 어떠한 정책조율이나 정보공유 의사타진조차 없이 오직 미국의 국가이익과 지배야욕만을 염두에 둔 행패였으며 저들의 미치광이 행위에 따라서는 수십만, 수백만의 무고한 주민들이 순식간에 죽거나 다치며 산업시설과 생활토대가 초토화될 수 있는 엄청난 재난이 따른다는 사실자체도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기 두 차례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이 있고난 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 및 대·소국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만든 국제연합(UN) 정신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익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정부를 뒤엎고 심지어 그 나라 대통령까지 잡아다 제 나라 감옥에 가두는 불의와 침략과 파괴행위등을 비롯하여 무엇보다 이 땅에서 국토와 한 동포를 분단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하고 긴장고조를 유지시키며 막대한 살인무기를 강매하고 50년 넘게 정치군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봉쇄 통제하여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들인자가 누구였던가? 인류를 수백번이라도 전멸시킬 수 있게 많은 핵무기 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제조저장 수출, 폭격해대는 자가 누구였던가. 이른바 저들이 말하는 '악의 축'이라는 나라보다 250배가 넘게 국방비를 지출하여 온 세계를 화약고로 심지어 우주까지 무장하려는, 그리하여 첨단 대량살상무기로 협박, 세계를 지배하려는 자가 누구를 '악의 축'이라 한단 말인가. 2차세계대전까지 일본·독일·이탈리아가 반공주축국이었다면 2차대전 뒤부터는 바로 미국자체가 '악의 축' 역할을 다하지 않았던가. 똥 묻은 개가 누구를 나무란다는 것인가!

그러나 세계의 지성과 양심들은 진짜 '악의 축'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부시 망발뒤 많은 나라의 정부당국과 민간단체, 지식인과 언론들이 미국의 터무니없는 위협공갈에 제동을 걸고 있었다. 부시의 서울방문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지타운대학 아시아연구소장 데이비드 스타인버그는 '부시에게 매우 결연하고 확고하게 북·미대화가 한국과 한국민들의 이익이란 설명을 해야한다'고 했으며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케네스 퀴노세스 아태연구소 한반도 담당관은 '김대통령은 한반도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책임이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인들의 관심사에 대해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피터 백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한국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정부관계자들의 도발적 언사들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셀리그 해리슨 미국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부시의 강경정책에 당당히 맞서라"고 조언했다.

세계의 언론들도 부시발언의 부당함에 힘을 실어주었다. 영국 〈인디펜던프〉지는 '부시는 미국의 칭송을 얻었지만 세계의 신뢰는 얻지 못했다' '단순한 확신과 일방적인 취향을 기초로 한 이번 연두교서는 미국에 대한 세계의 증오심을 가중시킬 것'이라 했고, 〈가디언〉지도 '부시는 그 비극(9·11)을 이용해 미국과 세계를 자신의 단순하고 협소한 전망에 따라 마음대로 재구성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르 몽드〉지도 '반테러 투쟁이 전적으로 군사적 사안일 수 있는가 - 미국의 국방예산을 15%나 증액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묻고 있었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영국·프랑스·독일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도 부시발언에 반발하거나 우려를 표명했다. 마침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32차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반미대중화현상은 미국의 정책잘못에 있다는 대체적 분위기였고 브라질 포루투알레그레에서 150개 나라 30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열린 세계사회포럼(WSF)은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에 저항하고 평화와 사회정의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며 미국의 확전과 군사주의에 정면 항의했다.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아래 전세계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영구적인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은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파괴하고 해고·임금삭감·살인적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 포럼의 '전쟁없는 세계를 위한 선언식'에서는 '9·11테러 대응은 또 다른 테러 세계에 신냉전의 찬물을 끼얹고 있다' '유엔은 역할을 상실했고 자본주의 진영국가들이 미국에 영원한 테러대리인 역할을 부여했다'고 미국의 강경정책을 폭로규탄 경고했다. 특히 이 포럼에 참석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노엄 촘스키 명예교수는 '테러리즘의 정의를 면밀히 검토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의 최근 외교정책이야말로 국제테러리즘이라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 정보기관원들 상당수가 지난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중동지역에서 좌파정권에 대한 테러리즘을 수행해온 사람들이다' '미국정부가 이른바 테러와의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인류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 밖에도 클린턴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울브라이트도 NBC방송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세 나라를 같이 취급한 것은 큰 실수'라며 '부시정권에게 미사일 기술 수출중단에 관한 협정체결 가능성도 함께 넘겨주었음'을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도 부시의 대북정책에 '전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며 부시가 불필요하게 강경한 언어로 자신(클린턴)이 거둔 미사일관련 외교상 업적을 망가뜨렸다고 개탄했다.

이처럼 온 세계의 지성과 양심이 부시발언과 미국의 일방적 군사지배 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때 정녕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모두 민족공멸할 화약고 위에 살고있는 처지도 외면한 채 부시의 나팔수가 되어 최소한의 민족적 양심마저 져버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란에서 부시발언에 대항해 보수·진보진영 모두 '뭉쳐야산다'며 단합강화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김 모교수는 '한국의 대북정책목표를 미국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미공조는 금간다'며 미국정책에 따르지 않고 있음을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도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정책과 따로 놀고 있다'며 미국추종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우리는 선의로 돕고 퍼줄 때 북한은 핵 무기를 개발하면서 장사를 한 셈이다' 라고 했으며 한나라당 김모의원은 '재래식 무기철수와 평화에 대한 의지선언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수출중단 등 부시의 국정연설은 현실을 직시한 정확한 판단'이라며 '현정부의 햇볕정책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살찌우고 남북대화와 통일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최악의 결과를 남겼다'고 차마 인용하기조차 역겨운 주장을 하고 있었다. 김모의원이 늘 수구·냉전적 자세를 보였었기에 그렇다치더라도 당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외세에 아첨하며 반민족적 거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결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었다. 언론에 보도된 야당총재의 행적을 알아보자.

지난 22일 미국을 방문 5박 6일을 지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공화당의 매파들을 만났다.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부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부장관 등 대북강경 주역들을 빠짐없이 만났다. 콘돌리자 라이스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서는 백악관 집무실까지 직접 찾아갔었다. 강경주역들이 주로 묻고 이총재가 답변하는 이 만남들속에서 이총재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답' 만을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반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비판, 주한미군 장기주둔강조등 미국의 매파들에겐 입이 쭉 째지게 기분좋은 답변들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말했듯이 '한나라당과 부시행정부가 대북 의구심에 공통된 입장을 찾은 것' 이다. 전형적인 매파 크리스토퍼 콕스 공화당 하원 정책위원장등은 매우 흡족하여 '선거승리를 기원한다' 라고까지 말했다. 「한국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미국에서 국무부차관보 이상은 만날 수 없다는 관례를 깨고 미국의 정부, 의회 고위층을 두루 만나 뜻을 맞추고 "지지약속" 을 받으려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위기상황을 볼모로 대권을 잡아 보겠다는 얄팍하고 저열한 행위일 뿐이다. 같은 당에서 주권국가의 국민대표기구 소임을 다하는 양심적 정치인(의원등)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항의하는 성명을 여당 국회의원과 함께 하고 미 대사관에 가서 '이 땅이 식민지국가이냐' 고 따지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는 또한 부시발언에 분노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8일 전직 장·차관과의 오찬모임에서 '국민의 정부는 한·미간 연합방위체제와 한·미동맹을 국가존립의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다' 고 말한데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4일 언론보도에 보도되고 있는 이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여 미국과 공조협력할 것' 이라도 테러로 마찬가지이다. 6·15남북공동선언에 정면배치되는 말이며 부시의 협박에 동조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의 이권을 노리듯이 이땅에서도 확전공갈을 치면서 남북긴장을 빌미로 4조 2천억에 달하는 차기전투기사업에서 (이사업 자체가 6·15공동선언정신에 배치된다) 저들의 F-15기 전투기구매를 강요할 것이란 보도가 있다. 정부는 부시가 말한 '악의 축' 을 포함한 대북강경정책에 단호히 맞서 그 부당성을 말하고 전투기 강매책동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국의 국가이익과 남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민족의 생존권 보장등 주권국가로서의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핵개발을 동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미사일시험발사 유예조처를 취한 이북의 평화지향적 모습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다. 더구나 전 정권이 합의한 조·미공동코뮤니케마저도 짓밟으며 오히려 온갖 트집을 잡아 동북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기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땅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말했던대로 식민지국가가 아니다. 남의 땅에서 전쟁책동을 부추기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6·15남북공동선언에 한치의 흠집도 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랍니다.

안은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안녕하십니까, 후원회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후원회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민가협과 인연을 맺은 게 벌써 몇 년인데 이렇게 지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95년 대학에 처음 입학한 후, 지금까지의 내가 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6년 연대 항쟁 이후로, 식민지 조국에서 청년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위 선후배들은 정권의 탄압에 의해 수배, 구속되었습니다. 97년 한 학교 최대 구속자!! 함께 생활했던 많은 동지들은 감옥 안에 있고 전 제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감옥 안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 라는 다짐을 하며 서울구치소를 수없이 뒤돌아 왔습니다. 그 시기 내가 힘들때면 찾아가는 그 곳은 바로 구치소 면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양심수' 란 존재는 저에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가곤 하던 곳이 매주 목요일 민가협 목요집회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 탑골공원에서 보랏빛 수건을 쓰시는 어머님들을 보면서 자식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99년에는 조계사에서 수배해제 농성을 하고 계시던 한 선배(아마 지금의 후원회 간사이실껄요?)의 권유로 이번에는 직접 내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 촉구!' 를 외치며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치수배자 가족협의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된거죠. 매일 국회로, 법무부로… 자식의 수배해제를 위해 고생도 마다않으시는 부모님들과 함께 하면서 어느덧 제 마음 속에도 그 바램이 간절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조계사의 생활도 끝나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여전히 이땅엔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계사에 이어 이번엔 명동성당에서 온몸으로 투쟁하며 길게는 8년이 넘는 수배생활을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면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배생활이 끝나는 걸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번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활 공간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마치 제2의 인생을 사는 듯 정말 모든 열정을 받치며 활동하시는 후원회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명동성당 사람들과의 아쉬운 헤어짐을 뒤로 한 채 지금은 저도 제 생활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지금껏 내가 생각한 바를 지키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자 노동조합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내기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 조국의 자주 · 민주 · 통일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몫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회장님 이하 후원회원분들과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광고

● '민족21' 의 독자가 됩시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민족 21' 과 함께 구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이시자 '민족 21' 에서 일하고 계시는 비전향장기수 김영승선생님께서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드리고 계십니다.

모든 회원들께 미리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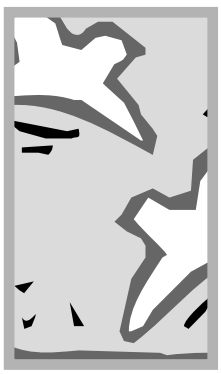
'민족21' 은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잡지로써 북녘가신 선생님들과 회원들과의 편지교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회원들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 2월 산행 ●

새해 두 번째 산행입니다.
설을 지내느라 넷째 주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새해의 기분으로 기분좋은 사람들과
마음 넉넉한 산행을 했으면 합니다.

- 일 시: 2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도봉산 그린파크 앞
- 준비물: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 차 편: 6번, 28번 종점

● 양심수후원회 소모임 ●



현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는 여러 소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교육과 시사강좌 등을 진행하며 더불어 배우는 '시사모임' (송창학 016-235-3726)
▶우리의 새로운 얼굴로 널리 등장할 '홈페이지관리모임' (장재영 02-977-8363)
▶ '후원회 소식' 을 만들며 글쓰기를 서로 나누는 '편집모임' (이승미 016-395-0725)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장기수선생님후원모임' (이정태 017-281-5500)
▶양심수와 따듯한 공감을 형성하는 '양심수에게 편지쓰기모임' (고광희 017-230-7593)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을 일구어내고자 하는 '회원사업모임" (노혁 019-323-0598)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교육강좌 ●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교실' 3강이 열립니다.
역사가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 일 시: 3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낙성대 만남의 집
- 차 편: 지하철 2호선(낙성대역 8번출구)

●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회원자료 정리작업을 14차 정기총회 전까지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직도 연락처 등을 모르는 회원님들이 적지않습니다. 회원님의 이사, 이직 등으로 미처 연락처를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지 않으면 소식지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도, 후원회 행사 일정을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및 팩스 02-888-4470(회원모임방)
▶전자우편 yangsimsu@yangsimsu.or.kr

2002년 1월

01 온누리 흰눈과 함께 새해가 열림. 양심수후원회 야간산행모임은 새벽에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 붉게 동터오는 힘찬 햇살 지켜보며 희망새해를 맞음. 이정태, 이득행, 양계숙, 신현익, 이상희, 김호, 고광희, 이혜정 함께 함. 이어 권오헌 회장님댁에 찾아 뵙고, 회장님과 함께 박용길 장로님, 조만조 전 지도위원님, 박정숙, 김선분, 박선애 선생님께 새해세배 드림. 갈현동 후원회원들인 곽인석, 오영순, 이승미, 박정철, 한찬욱 등은 정순덕 선생님, 박정숙, 김선분 선생님, 박종린, 안희숙 선생님 등을 찾아 뵘. 이창희, 한수정 등은 안학섭선생님께 새해인사 다녀옴.

02 이구영선생님, 조석귀할머님(권낙기선생님 어머님), 고봉희할머님께 새해인사드림. 이정태, 양계숙, 변의숙, 이득행, 권오헌 함께 함. 이창희, 고광희 간사 등 우리탕제원 양희철 선생님께 인사다녀옴

03 민가협 409회 목요집회 여는 말 – 임기란 상임의장, 양심수에게 편자임동규 범민련 광주·전남 의장에게 이정태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심재춘씨 어머니(박영옥님) 아드님에게, 현재 수배중인 건국대 최원석 학생 어머님 방영수님의 아들을 그만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새해소망, 손준혁 6기 한총련 의장이 보내온 새해편지, 김수룡 선생님의 깜짝이벤트- '반갑습니다' 노래선물.

양심수후원회 새해 집행부(회장, 간사, 수습간사)모임 후원회소식 발행문제, 역사교실, 영치금보내기등

이정태, 이창희 홍화씨 기름 구입하여 최광기님에게 전함

04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홍복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등)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한용진씨에 대해 '영장없이 찍은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

양심수후원회내 소모임 '홈페이지모임'이 장재영 회원의 집에서 있었음. 현 상태에서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등을 공유하고 서로가 할 일등을 분담하였고 앞으로 소모임구성원을 충원하고 정기모임일을 정하였음. 이득행, 양계숙, 장재영, 김기홍, 고광희회원 함께 함.

한수정, 송창학, 이창희 등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시사모임을 갖고 회원교육강좌 등을 준비함

05 종로 기독교회관 지하식당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신년하례식 갖다.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범민련남측본부, 전국연합, 전농, 민주노동당, 통일광장, 유가협, 4월혁명회,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 자통협, 민변통일위원회, 한청, 한총련, 범청학련, 경실련통일협회등 함께 하며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등 보고가 있었음

06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 주관 '역사교실' 첫 강좌가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있었음. 한상권교수(후원회 운영위원. 덕성여대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조선조 말에서 오늘에까지 근현대사 강의를 2002년 한 해동안 이어질 것임. 이 날 제1강의는 "자주적 근대국민국가 수립의 좌절과 외세의 침략"이었고 강의가 끝난 다음 근대와 관련 비디오 상영과 질의응답이 있었음. 이 역사강좌는 평이 매우 좋아 다음 강의에 대한 기대가 컸음. 수강회원 33명 강의를 마치고 떡국을 끓여먹고 뜻있는 새해 첫 행사를 했음

07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는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시 사파동 동성아파트의 이승필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집에서 소형도청기 1개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반경 2km까지 도청이 가능한 이 도청기 발견으로 '아직도 도·감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거'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상규명 등 진

정과 감청여부 정보 공개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힘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동규선생님에게 이정태 회원이 면회다녀옴

08 서미라회원(김호현운영위원부인, 아주중학교 교사) 아버님이신 서덕종님께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초동 강남성모병원 빈소에 이기욱, 이정규, 한상권, 이정태 운영위원과 회원들, 안병길목사님, 노혁 으뜸일꾼외 옴시롱 회원들이 문상다녀왔습니다. 10일 7시 30분 영결식을 갖고 화장하여 용미리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김수환 추기경은 감사원 특강(주제-'삶의 지혜')에서 경찰, 검찰, 교도소에 대한 인권감사를 제안하며 '인간의 존엄은 천부적인 것으로 어떠한 권력도 침범할 수 없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

09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는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폭력에 따른 소음피해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천1백5만원~9백75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을 곽인석 회원이 문병다녀옴

10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성훈부장판사)는 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8년동안을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다 구속기소되었던 진재영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고 최종은 2001년 남총련의장(조선대 총학생회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 두 사람은 이 날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고 전남대학교에서 남총련주관으로 출소환영식 가짐. 양심수후원회 신현익, 이정태, 이창희, 김재명, 권오헌 재판방청과 출소환영식, 뒷풀이에 함께 함

- 광주교도소에 복역중인 라창순(범민련 고문), 최진수(민혁당), 황혜로(한총련 평양축전대표)님 면회함. 라창순선생님은 혈압, 당뇨등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식사도 잘 못하신다고 하셨으며 최진수님은 출역을 하고 있고 건강도 좋아보였음. 황혜로님도 건강이 좋은 편이었음. 세 분 모두 민가협 어머님들과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의 석방운동과 후원활동에 감사한다며 새해인사 전해달라했음 - 신현익, 이정태, 김재명, 이창희, 권오헌 나누어 면회를 하고 망월동 묘역으로 윤기남(89년 청주감호소출소 - 비전향장기수, 28년옥고, 1995. 2. 25일 돌아가심)선생님 묘소와 5·18국립묘지 참배함

- 민가협 410회 목요집회 여는 말-임기란 상임의장, 서용호(건설운송노조부위원장) - 1년여째 명동성당에서 생존권을 위해 농성중인 건설운송노조 레미콘노조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 노래패 '우리나라'의 문화공연, 감옥에서 온 새해인사-손준혁(6기 한총련 의장), 최성순(월곡동 철거반대로 구속), 박경화(아주대 학생),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89년 전남 거문도 유림해수욕장 앞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내창씨가 '실족익사'라는 당시 수사 결과와는 다르게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 - 사고지점의 수심. 실족했다는 지점이 전혀 미끄럽지 않고 이내창씨 혼자 거문도에 간 것이 아니라 안기부직원 도아무개씨와 '함께 다방에서 차를 마신 사실' 등 증언을 확보했다고 함

- 2000년 9월 2일 북녘으로 가신 비전향장기수 신인영선생님이 지난 7일 지병악화로 숨졌다고 이북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보도 - 신인영선생님은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32년 옥고를 치루고 98. 3.

13일 '골수암'으로 형집행정지 출소했으며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와 나라안팎의 송환요구로 6.15공동선언에서 송환방침 확정되어 이루어졌음.(후원회소식 123호 보고)

- 고 신인영선생님 추도광고를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와 그 소속단체인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장기수후원회,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 통일광장 공동으로 한겨레신문에 내다

11 고 신인영선생님 빈소를 용산구 동자동 소재 통일광장 사무실에 차리고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과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등 사회단체 성원들 문상받음 - 오후에는 빈소에서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 사회로 추도식 가짐 - 약력, 경과보고(김영승), 조사(임방규, 이종린, 임기란), 추도시(진관스님), 헌화하는 순서로 진행, 양심수후원회 이정태, 이득행, 양계숙, 변의숙, 송창학, 박정범, 이승미, 김호, 한수정, 고광희, 이창희, 권오헌 등 문상

- 향린교회에서 자통협 가입단체와 사회단체 대표들 초청 함께 한 가운데 지난 1년 사업보고와 새해사업을 다짐하는 자통협 신년하례식을 갖고 떡국 등 음식을 들며 덕담을 나눔

- '평화포럼' 이사장인 강원룡 목사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은 누구나 차별없이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법대로라면 작년 8월 평양간 사람들은 모두 법위반인데 이는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 되었다며 '남북교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현실적인 법(국가보안법)은 개폐되어야 한다'고 강조

12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는 충북 괴산군 화양관광농원에서 '민족통일일꾼 수련회'를 12~13일까지 갖고 "2002 조국통일 정세와 통일애국운동의 방향"등 강연회(민경우사무처장)와 '2002통일운동 전망을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가졌음 - 이 수련회에는 범민련성원 400여명과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전노련, 한청, 통일연대, 통일광장, 민변통일위원회 대표들이 함께 했고 신현익, 이정태, 이승미, 이창희 등 양심수후원회 회원도 참관자로 함께 함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을 김현애, 황은경, 곽인석 회원이 문병다녀옴(항상 두 번째 일요일에 가다가 이번부터 토요일마다 면회가기로 함)

13 박종철열사추모 서울대 준비위 주관으로 마석모란공원 열사 묘소에서 15주기 추도식을 갖고 저녁에는 서울대 문화관에서 '그대 온몸 깃발되어'라는 추모문화제를 열었음. 양심수후원회 송창학, 고광희회원 함께 함

14 서울대 박종철열사 추모비앞에서 박종철열사추모 서울대준비위 주관으로 15주기 추도식 열음. 한국통신비정규직 농성투쟁 노조대표, 서울대 총학생회장,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대표 등 추도사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주례모임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 123호 발행, 신년하례모임준비등 논의

- 서울지법 형사14단독(신광렬판사) 심리로 강정구교수 국보법위반사건 3차공판 열림. 검찰심문 - 친북성 입증하기위해 억지유도심문, 중복심문으로 빈축사다. 강정구교수 풍부한 지식과 논리적 적합성으로 대응 압도함

- 미군의 노근리 민간인 학살현장에서 민간인에 총을 쏘지 않으려는 병사에게 소속부대 중대장이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당시 미군 제1기갑사단 제7기병연대 2대대 박격포중대 소속병사였던 조지 얼리(68. 오하이오주 톨레로)가 그

때 총상을 입고 살아난 피해자 서정갑(63. 영동읍 주곡리)씨에게 보낸 사죄편지에서 밝혀지다. 이로써 미군의 양민학살은 '명령체계에 따른 학살'로 인정되었음

15 ㆍ 동국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청년학생 교양강좌 '청년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인생관' 주제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대표 강의.

ㆍ 노근리 미군양민학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은용)는 6·25참전미군병사 얼리의 명령체계에 따라 양민학살했다는 증언이 있는만큼 '미국은 노근리의 진실을 덮으려하지 말고 즉각 재조사하라'고 주장. 노근리학살사건 재조사, 노근리사건 공식사과와 배상, 희생자를 위한 조건없는 추모비건립 등을 변호사를 통해 미국에 요청

ㆍ 양심수들에게 2차 연하장 89통 발송('양심수에게 편지쓰기모임' 회원들도 함께 보냄)

16 ㆍ 후원회소식 123호 원고최종교정, 사진과 함께 기획사에 넘김

ㆍ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부장판사)는 미육군 2사단 소속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에게 살해된 술집여종업원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매카시상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카시상병은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

ㆍ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동규선생님에게 이정태 회원이 면회다녀옴

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제35차 회의를 열어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8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17 ㆍ 민가협 411회 목요집회 여는말—임기란 상임의장, 민주노동당 정명아·금수경씨 구속과 관련 노회찬씨 국가보안법 철폐연설, 진재영 94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소인사말 등

ㆍ 동국대 중강당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9기 1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열고 새 의장으로 경남연맹 정현찬의장을 선출

ㆍ 양심수후원회 새해인사모임 및 13차년도 9차운영위원회를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었음. 후원회 지도위원, 감사, 운영위원, 사무국 간사와 기획위원등 활동회원들, 그리고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과 김정숙, 서경순 전 상임의장외 12명 어머님들, 낙성대 만남의 집과 우리 탕제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함께 하심. 권오헌대표의 인사와 진행으로 박용길(지도위원), 임기란(상임의장), 양희철(출소장기수), 홍근수(지도위원), 김규철(감사)선생님의 덕담이 있었고 이어 한수정, 고광희, 이창희회원등이 준비한 떡국으로 저녁식사를 했음. 그리고 지도위원(박용길, 홍근수), 감사(김규철, 노중선, 진관스님), 운영위원(김지영, 송경용, 이정규, 한상권, 김호현, 이정태, 권오헌)과 사무국간사(이창희, 고광희)와 민가협 어머님들, 기획위원, 회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 열었음. 2001년 12월 사업 및 재정보고와 남북새해맞이 공동행사 참여문제, 국보법철폐·양심수석방·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토요캠페인문제, 제14차 정기총회준비등 협의했음. 이어 지난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진재영씨 출소환영시간을 가졌음. 환영모임에는 진재영씨의 인사말과 명동성당에서 함께 농성투쟁을 했던 민애청, 구로청년회에서도 함께 하며 저마다 환영말과 농성할 때 이야기를 나누며 뒷풀이를 했음.

18 ㆍ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부장판사) 심리로 2001 민족통일 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와 구속·기소 재판을 받고있는 범민련 김규철부의장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규철·김세창·전상봉씨에게는 5년, 임동규·박종화씨에게는 4년씩 구형 - 이정태, 고광희 회원 방청 - 이 자리에서 이정태회원은 민족무에 경당회원

들과 함께 법정에서 임동규사부에게 새해세배를 드렸답니다

- 서울지법 형사6단독(김정원판사) 심리로 민주노동당 동대문지구당 정명아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첫 재판이 열림. 전단배포와 책자 하나를 갖고 있었다는 혐의로 찬양 · 고무죄를 적용시킴. 검찰의 직접심문, 변호인 반대심문 끝에 결심 - 검사는 정명아씨에게 2년을 구형. 정명아씨 최후진술에서 자본주의사회 특히 '초국적자본이 지배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리해고등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는 명쾌한 논리전개, 그리고 고무 · 찬양 혐의의 부당성을 지적
- 늦봄 문익환목사 서거 8주기 추모식과 묘소참배를 마석 모란공원 목사님 묘소에서 (사)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있었음. 박용길 장로님과 유족이 함께 한 가운데 유원규목사님 사회로 한상렬 통일연대상임의장 말씀. 추모노래, 오종렬 전국연합상임의장 추모사, 정은숙(고 문호근선생 미망인)교수의 가족인사말, 이재정이사장 인사말, 박형규목사님의 추도 · 헌화하는 순서로 마침. 이창희, 권오헌 함께 했음
- 노래극단 희망새(대표 조재현)는 17~20일까지 경동교회에서 창작음악극 '지리산에 가고싶다' 첫 번째 공연을 했음. 모지희, 김도균회원과 권오헌외 회원여러분 공연관람
- 소식지 발송작업(국내 1045통, 국제 16통) - 이승미, 송창학, 김재명, 김호, 한수정, 고광희, 이창희 등이 함께 함.

19 -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인권연구 첫모임, 발제: 이창희간사, 인권의 역사 함께 토론함
- 옴시롱 감시롱 2002년 총회를 이천 지선도예실에서 열림. 지난 1년 활동과 회계보고 승인, 새 으뜸일꾼으로 모지희, 회계는 김혜순, 총무는 김호현회원 선출함 또한 지난해 남은 돈 가운데 300,000원을 문재룡 선생 치료비로 전하기로 결의

20 - 양심수후원회 1월산행 모두 16명이 함께 하여 평창동 북악파크호텔앞을 떠나 일산사 형제봉 능선-청수천 탐방길-정릉으로 내려옴. 가랑비에서 진눈깨비-함박눈등 산에 오르는 고도에 따라 일기변화현상 멋진 산행이었음. 내려와서는 김교영 선생님 댁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이창희간사 진행으로 시사모임을 가짐 - 김수룡, 유기진, 송세영, 김교영, 안학섭, 김영식, 변숙현, 이득행, 양계숙, 한수정, 이승미, 이정태, 신현익, 송창학, 이창희, 권오헌 함께 함

21 -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월요주례모임 - 수유리에서 후원회소식 124호 제작준비, 홈페이지작업, 회원관리문제 등 협의

22 - 동국대학교 본관 앞에서 강정구교수 무죄판결 추진위원회와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공동주최로 강정구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취지말(권오헌), 각계대표 발언(천영세, 허영구, 박순경, 손장래, 동국대총학생회장), 기자회견문 낭독(홍근수)으로 진행한 다음 송석구총장을 면담하면서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며 촉구서한을 전달

23 -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인권 · 사회단체 실무책임자 천주교 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문제' 등 토의하고 수지 김 사건등 공동대응하기로 함.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동규선생님에게 이정태 회원이 면회다녀옴
- 구로동 서울지역 민주노동자회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기소되어 항소심에

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서민노회사건 최석희, 문재훈, 김봉림씨 석방환영대회가 열렸음. 서민노회 회원과 구로지역 사회단체 노동단체 민주노동당 등 50여명이 모인 이 환영식에 송창학, 권오헌 함께 하며 환영 인사

- 서울지법 형사4단독(윤남금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노동당 금수경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년6월 구형. 이정태, 고광희회원 함께 함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국민의 인권침해 위험성이 크다'고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힘
- 홈페이지 모임을 장재영회원 집에서 가짐. 홈페이지 전반적인 문제점 공유와 역분, 앞으로의 각자의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이득행, 장재영, 양계숙, 김도균, 고광희, 변의숙회원 함께 함.

24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특위(위원장 권오헌)대표단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이원영)대표들과 서초동에서 법개정과 진상규명위 활동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조사권강화, 조사기간연장등 개정안내용 의견제시함
- 과천 '한백의 집'에 계시면서 '대상포진' 증상으로 투병하고 계신 박종린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박선생님은 지난 6일경부터 '증상'이 나타나 김지영내과에 가시어 김원장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고 입원하려했으나 뜻대로 되지않아 오랫동안 집에서 투병하셨습니다. 이 질환은 매우 통증등이 심했기에 투병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었는데 마침 문병갔을때는 많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민가협 412회 목요집회 여는 말 - 임기란 상임의장, 구치소내 의료체계 문제점 - 인권실천시민연대 이광열씨, 현재 감옥안의 의료실태 - 인권운동사랑방 유혜정간사, 1/7서울구치소내에서 사망한 조순원씨의 누나 조혜원씨 발언, 교도소내 의료실태 촉구문 낭독
- 행정자치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5국 18과 1소속기관 180명으로 하기로 인권위와 합의했다고 발표. 그러나 행자부와 인권위는 인권위법 시행령과 예산안 직원선발을 위한 특례규정안등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를 맞추지 못해 인권위의 정상가동에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임
- '말'지 4권과 '민족21' 10권을 양심수에게 보냄.

25
- 영국 BBC방송은 오는 2월 1일 방영될 다큐멘터리 '모두 죽여라(Kill' em all)'에서 미군이 Korea전쟁 초기 몇 달 간 노근리를 포함한 최소한 10여 곳에서 민간인들에 무차별사살을 반복해 명령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해군의 400여명 미25보병사단 작전지역에서 어린이등 82명을 비롯 지휘관들이 '전선지역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 '모든 피난민들을 쏴죽여라'고 명령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발표

26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은 26~27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이천군 덕평수련원에서 '전국연합 11기대의원수련회'를 가졌음. 26일 오후에는 수련회입소식, 오종렬상임의장 인사말과 내빈소개에 이어 10기사업보고, 11기사업방향발제(한충목), 분임토론, 종합토론이 27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27일 오전 전국연합 강령 및 정치조직방침(체제)-박세길 발제, 전체토론 등으로 이어지고 오전 11시 폐회했음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을 김현애, 황은경, 곽인석 회원이 문병다녀옴. (마지막 토요일에는 항상 문병다님)

- 전대협 동우회 사무실 이전(충정로역 근처) 개소식에 이창희 간사 다녀옴.

27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지난 해 기소돼 10개월째 재판을 거부해온 미8군 34지원단 영안실 전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에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미군쪽이 이를 다시 거부한 것으로 27일 알려짐.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판사는 '맥팔랜드에게 공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영내외 송달을 시도했으나 미군쪽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며 기소후 10개월 남짓 재판이 열리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음. 미군쪽은 공무중 발생된 범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은 일차적으로 미군쪽에 있다며 공소장 수령을 거부해 왔었으나 법무부 해석은 평화시 미군무원 · 가족의 재판권은 우리쪽에 있다고 합의의사록에 명시돼 있다고 하였음

- 2월초 홈페이지 재오픈을 앞두고 마지막 홈페이지 모임을 가짐. 밤을 꼬박 세워 다음 날 저녁까지 홈페이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력. 이득행, 장재영, 양계숙, 김기홍, 고광희 회원 함께 함

28 양심수후원회 집행부 주례모임(만남의 집). 후원회소식 124호 발간문제, 한총련합법화 대책문제, 홈페이지보강문제, 그 밖에 연대사업등 논의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오다 1999년 폐질환으로 숨진 계훈제선생의 민주화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고 명예회복선정도 보류하다, 심의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민주화운동과 직접관련이 있어야 하고 '명예회복' 문제에서도 민주화운동과 관련 실형을 받아야 한다고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밝힘

29 민가협 운영위원회 창신동사무실에서 열다 - 활동 · 재정보고, 하장호씨 민가협 인턴신청 받아들이기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참여키로. 17차 총회 준비구성안 등 협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목사)가 시청앞 신동아화재빌딩 사무실에서 출범식, 현판식 갖다

-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박시환 부장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경수씨가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있는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에 위배된다' 며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하고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케 함

- 동국대 재단이사회는 평양대축전때 '만경대' 방문록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정구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방침을 선고공판 이후로 보류한다고 밝힘

30 창신동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002년 제1차 상임대표자회의 열다. 상임대표 일인승계(조찬배 유가협 새회장), 의문사특별법개정안 및 법개정특별위원회 인준안(권오헌위원장), 민주공원후보지 확정촉구투쟁, 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기각 및 보류에 대한 항의건(계훈제 선생외), 명예회복 ·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건 등 협의 · 결의하다

- 태평로 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조선일보 반민족 · 반통일 민간법정' 이 추진위원등 500여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간법정 추진위원회(대표 오종렬외) 주최로 열림 - 민간법정 검사단이 조선일보의 반민족 · 반민주 · 반통일 언론행위에 대한 준엄한 논고와 증거, 증인 그리고 변호인의 반대심문, 각계인사 30명 배심

원(조문기외)의 유죄평결에 따라 민간법정 수석 판사(고영구)는 '피고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 라고 판결함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동규선생님에게 이정태 회원이 면회다녀옴
-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사장 변형윤)은 한겨레신문사에서 제4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시상식을 (아들 정몽준의원 대신 받음) 갖고 고인이 금강산관광 등 이 땅에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내고 냉전종식에 큰 기여했음을 밝힘
- '부시' 란 자가 미 상 · 하 양원 합동회의 첫 국정연설에서 이북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중심축' 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들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떠벌리며 가장 호전적이고 방자하며 저속한 깡패기질을 다시 드러냄
- 민변,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등 5개단체는 '수지 김 피살사건' 의 진상을 은폐 · 조작한 혐의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서울지검에 고발 - 고발장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국가기관의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음으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고 밝힘
- 회원사업모임 인사동에서 모임갖다 - 전화연락작업 등을 통해 회원들을 여러 소모임으로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고, 신입회원 환영의 날 행사 등 독자적 사업방안에 대해 얘기나눔. 곽인석, 변의숙, 노혁, 고광희회원 함께 함.

31 - 향린교회에서 민가협, 전국연합, 범민련,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월혁명회, 전대협동우회, 통일광장, 민가협양심수후원회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음. 이창희 간사의 사회로 민중의례, 간담회 제안취지(권오헌), 경과보고(강위원)에 이어 대책위 준비위구성문제에서는 폭넓은 단체와 대표들 함께 하여 결성하자는 의견과 대책기구구성의 시급성을 말한 또 다른 의견을 조화하여 대책기구준비모임 책임자(권오헌)와 실무책임자(한충목), 간사(이창희, 강위원)만 호선하고 간담회 마침

- 통의동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 코오롱빌딩에서 민주공원추진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공동으로 민주공원 건립터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감. 기자회견을 마치고 계승연대 상임대표들(오종렬, 조찬배, 박정기, 남상헌, 권오헌)과 유가족들은 조준희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장을 면담. 계훈제 선생등 5명이 보상심의에서 기각된 일에 항의, 재심사를 요구하였음
- 민가협 413회 목요집회 여는 말 - 임기란 상임의장, 대체복무제가 확립되어 양심이 보장되는 사회 만들자 - 정진우목사, 2/7 경찰출두를 앞두고 어머님께 보내는 편지—오태양씨,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오태양씨가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오태양씨 누님의 발언, 해외에서의 양심적병거부사례 - 평화인권연대 최정민간사. 집회가 끝나고 임기란 상임의장을 비롯한 어머님들 민주공원터 조속 확정촉구 농성장을 방문 격려하였음
- 송창학, 한수정, 이창희 등 시사모임을 갖고 회원역사강좌를 준비함.
- 양심수 76명에게 영치금을 보냄
- 출소장기수선생님들에게 지원금을 보냄
- 양심수 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